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분포양상

백종진*

- I. 머리말
- II.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
- III. 대정·정의현 관내 마애석각
- IV. 맺음말

국문초록

현재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조선후기 마애석각 중 조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101건이다. 제주목 관내에는 82건이 분포하며, 勝地인 방선문·백록담·용연에 집중 분포한다. 한편, 승지 외 제주읍 성 안 오현단과 산지천에도 마애석각이 조성되었는데, 이들은 승지에 조성된 석각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대정현과 정의현 관내 19건의 마애석각은 대정현 邑治 인근에 자리한 산방굴사에 집중 조성되었다. 반면 천제연과 정방폭포와 천지연은 석각 조성의 주도 인물이었던 3읍의 지방장관이 쉽게 채비하여 나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지리적 요건이 작용하여 조성 시기가 늦어지고 개체수도 미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 마애석각,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승지

* 제주문화원 사무국장(chon1217@naver.com)

I. 머리말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산수 유람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것 중의 하나가 바위나 누정에 題名을 하는 것이었다.¹⁾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三神山 중의 하나로 여겨지던 한라산²⁾이 존재하는 제주는 조선시대 이래 제주 3읍의 수령과 판관 등 지방관과 제주에 유배 왔던 謫客들에 의해 조성된 磨崖石刻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전설상 徐市이 서귀포 암벽에 새겼다는 刻字를 논외로 하고³⁾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 중 연대가 분명한 最古의 것은 1578년(선조 11) 이전에 새겨진 제주시 용담동 소재 용연의 암벽에 새겨진 해서체 ‘翠屏潭’ 각자이다. 그리고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상호동 효돈천 변 소재 바위에 새겨진 ‘觀難峇’ 각자가 있다.⁴⁾ 이상 2件⁵⁾의 석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조선후

- 1)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2009, 277쪽.
- 2) 南九明, 『寓庵先生文集』 卷4, 說 神山說, “世俗傳 漢拏山爲三神之一 蓋州號嘗稱東瀛洲 旌義界有山 不甚高者 名瀛洲山 以此好事者傳會爲眞瀛洲 …”.
- 3) 世間에 秦나라의 方士인 서불이 서귀포시 정방폭포 절벽에 徐市過之 또는 徐市過此라는 글자를 刻하고 돌아갔다는 전설이 전한다. 서불 관련 제주지역 최초의 문헌기록은 金錫翼(1885~1956)의 「破閑錄」에 기술된 내용이다. 여기에서 김석익은 서불이 서귀포 해안 가파른 절벽 중간에 글씨를 새겼는데 고종 때의 제주목사 白樂淵(1828~?)이 순행하던 중 사람을 시켜 蝌蚪體 모양의 글자 12자를 탁본하여 왔다(西歸浦沿岸 有峭壁 不啻數千仞 下臨滄海 鯨壽海湧 世傳 壁半 有秦方士徐市所刻字痕云 先是牧使白樂淵巡行到此 人以以此說告之 遂命自壁上以長繩縋一人 下垂引之 摸其字跡而還 蓋字體如科斗 雕虫者 凡十二個字 而不可解得云)는 세간의 구전을 기록하고 있다.
- 4) 관나암 마애석각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맞은편 上孝橋 아래로 500m 정도 거리 효돈천 서쪽 냇가 변에 소재하는 바위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觀’자 하나의 크기는 가로 10cm×세로 10cm이다. 문헌에 의하면, 15세기 후반 현재 관나암 바위가 있는 효돈천을 마주하여 동서 언덕에 靈泉寺와 靈泉館이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旌義縣, 樓亭條). 영천관은 行客 및 봄가를 點馬時 절제사의 숙소를 목적으로 제주목사 李由義(재임기간: 1466.윤3.~1469.윤2)가 창건하였고, 1601년(선조 34) 이전에 폐관되었다. 영천사 또한 1601년 이전에 폐사되었다(金尙憲, 『南槎錄』, 辛丑年(1601) 10月 14日 戊寅條). 그런데 현종 때 제주목사 이원조는 관나암 세 글자를 영천사의 승이 새겼다고 기

기에 조성되었고, 일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새겨진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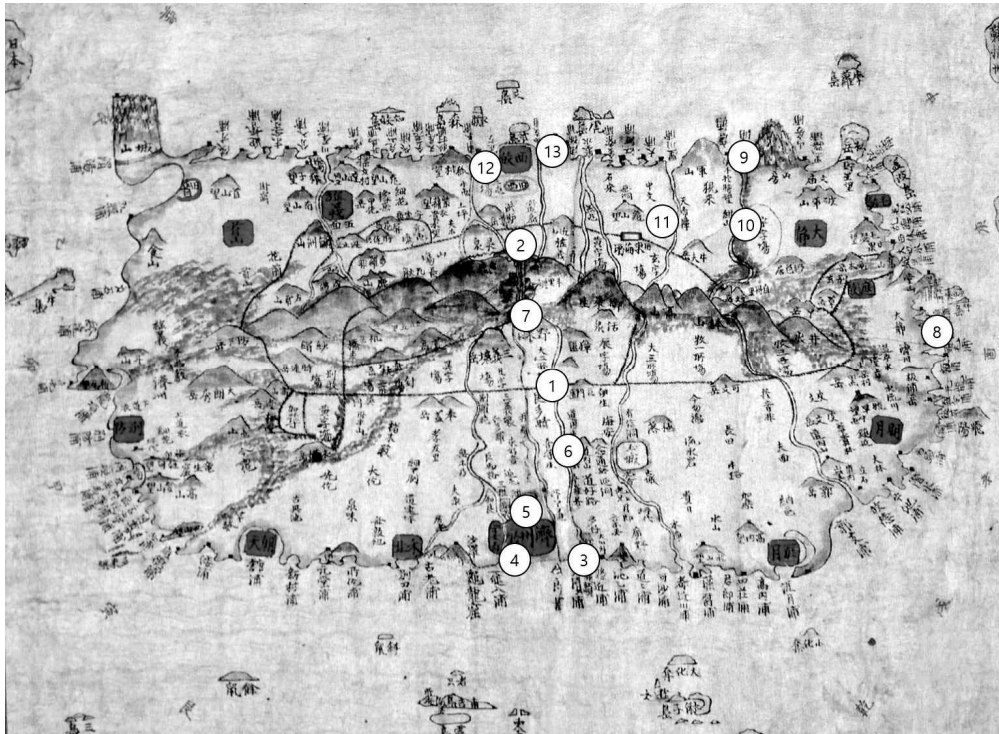
조선후기 제주 3읍의 지방관과 유배인 중 마애석각 조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主導人物은 제주목사이다.⁶⁾ 때문에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분포지는 제주목사의 직접 통치를 받던 제주목 관내에 집중되고, 大靜·旌義 兩縣에는 소수만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섬이라는 지리적 요건에 의해 대정현과 정의현의 수령이 전라도관찰사가 아닌 제주목사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야 했던 조선시대 제주도의 특수한 통치행정체제에서 기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조성된 마애석각의 분포양상을 제주목 관내와 대정·정의현 관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조성된 마애석각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조성된 마애석각의 분포 현황과 함께 문헌자료에 보이는 분포지의 인문지리적 특징에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내용 분석을 통한 마애석각의 의미와 성격 및 조성을 주도했던 인물과 隨行人員, 문화원형으로서의 마애석각의 가치 등에 대한 고찰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록하고 있다(李源作, 『耽羅誌草本』 卷4, 旌義 山川條, “靈泉川 在縣西五十五里 川邊大石上 有觀儺巖三字 在昔 靈泉寺僧 所刻云”). 이를 종합해 보면 관나암의 ‘儺는 儺禮 곧 점마시 영천관에 머무는 목사를 위해 베풀었던 연회를 뜻하고, 관나암 마애석각은 이를 관람하던 장소를 기념하여 새겨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필자는 영천관이 번성했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 사이가 관나암 마애석각이 조성된 시기라고 생각한다.

- 5) 금석문의 한 종류로써 암벽과 바위에 새겨진 石刻의 수량을 헤아리는 단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필자는 절벽과 바위의 암면에 새겨진 석각을 조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석각을 ‘조선후기 濟州島라는 일정한 공간 내의 특정한 장소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암벽과 암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간’의 의미로 그 성격을 이해하여 磨崖石刻이라 命名하고, 그 수량 단위를 ‘伴’으로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낱한시 같은 장소에 동행했던 다수의 인물이 암면을 달리하여 새긴 마애석각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조성을 주도한 인물을 중심으로 1건으로 처리하였다.
- 6) 졸저,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43-79쪽 참조.

끝으로 본고에서 말하는 조선후기의 시대적 범위는 17세기 이후 1910년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국권침탈 이전까지를 지칭한다.



〈사진 1〉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도

제주목 관내 ①방선문 ②백록담 ③용연 ④산지천 ⑤오현단 ⑥오리동 '가카우니' ⑦ 탐라계곡 ⑧용수리 절부암/ 대정현 관내 ⑨산방굴사 ⑩창천리 창고전 ⑪천제연/ 정의현 관내 ⑫정방폭포 ⑬천지연

Ⅱ.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은 전체 101건이다.⁷⁾ 이 가운데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의 개체수는 82건으로 전체대비 81%에 해당한다.

조선후기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 중 刻文에 직접 새겨진 干支 이외에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선후기로 造成時期⁸⁾를 확인할 수 있는 마애석각

7) 101건에 대한 장소별 분포현황은 부록의 <별표-1>, <별표-2> 참조.

의 분포 실태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후기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 분포 현황

계(件)	방선문	백록담	용연	산지천	오현단	오라동 가카우니	탐라계곡	용수리 절부암
82	36	19	19	3	2	1	1	1

<표 1>은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이 경치가 수려한 방선문과 백록담, 용연에 전체 대비 90%로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장에서는 이 세 곳을 주요 분포지로 분류하고, 산지천 이하 소수 분포지를 기타로 분류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 주요 분포지

1) 방선문

방선문은 현 제주시 오라2동 관내 오등동 소재로, 탐라계곡에서 발원한 한천[大川]이 용연으로 흘러드는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방선문에 대한 문헌기록은 숙종 때 제주목사 李益泰가 남긴 『知瀛錄』에 처음 보인다. 이익태는 1695년(숙종 21) 8월 19일 한라산을 두 번째로 오르다가 일기 불순으로 중간에 하산했다. 하산 도중 잠시 방선문에 머물면서 그곳의 풍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두 갈래 계곡이 모여 합쳐져 북쪽으로 흐르는데 경치가 말끔하였다. 하나의 커다란 암석이 언덕에서 이어져 옆으로 누웠는데 골 입구의 가운데가 통하여 큰 구멍이 마치 문과 같았다. 진달래와 단풍 등 꽃나무들이 좌우 푸르른 벼랑에 번갈아 줄을 지었는데, 봄가을에 놀러 와 구경하기에 가장 적당하다.⁸⁾

8) 본고에서 제시하는 造成時期의 근거는 대부분 刻文의 末尾에 새겨져 있는 干支에 근거한 것이다. 즉, 題名이나 題詠 등에서 밝힌 石刻 조성시기는 題名者의 방문 시기를 의미하며, 방문 시기와 조성 시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이어서 현종 때 제주목사 李源祚 또한 그의 저술 『耽羅錄』에서 한라산 등정 길에 방선문을 거쳐 갔음을 밝히고 있다.¹⁰⁾ 그리고 瀛洲 10경을 品題하면서 방선문을 瀛邱賞花의 장소로 소개하고 있다.¹¹⁾ 결국 문헌상으로 보면 제주목사 이익태 이래로 방선문이 한라산 등정과 하산시에 들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봄가을 유람에 가장 적당한 探勝地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승지로서의 방선문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조천리의 鄉士 李漢雨(1823~1881)가 영주 10경 중 제3경으로 품제하면서 현재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¹²⁾ 방선문은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암절 또한 해안의 다공질 현무암과 달리 매끄러워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마애석각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익태는 방선문을 擧巖谷이라 칭하면서 俗名인 ‘들림괴’를 한글로 併記하고 있다.¹³⁾ 이후 영조 때의 제주목사 金倣은 穿弄串으로¹⁴⁾, 현종 때 제주목사 이원조는 登瀛邱로 소개하고 있다.¹⁵⁾ 이를 통해 방선문이 19세기 중반까지는 들림괴로 불렸고, 한자어로는 거암곡, 천룡곡, 등영구 등으로 借訓 또는 借音되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들림괴가 방선문으로 命名된 것은 정조 때 제주목사 尹得達(재임:

9) 李益泰, 『知瀛錄』, 乙亥(1695) 8月 19日條, “十九日…雙溪會合北流 泉石清潔 有一大岩 連崖橫截 谷口中通 大穴如門 擲躑躅楓樹等花卉 交列於左右蒼壁之岸 最宜於春秋遊觀 …”.

10) 이원조의 『탐라록』에 등재된 「遊漢拏山記」에 의하면, 추분 다음날 제주유생 金英樂과 막료 3인과 아들 鼎相과 함께 한라산 등정 길에 올라 竹星村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했다. 죽성촌은 현 제주시 오라동을 이르는 말로 아직도 ‘그다사’라고 부른다(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譯註增補耽羅志』, 濟州文化院, 2005, 43쪽, 주 94). 이때 이원조와 동행했던 인물의 이름과 干支가 새겨진 刻字를 방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李源祚, 『耽羅錄』上, 辛丑(1841) 1月 2日條, “瀛洲十景題畫屏…廣闊幽深境不齊 就中奇絕卽山溪 春風隨入飛仙窟 躑躅花前海鳥啼 瀛邱賞花 …”.

12) 김치완은 이한진의 영주십경 품제 배경을 조선 유학자들의 遊山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였다(김치완, 「梅溪 李漢雨의 ‘낙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제3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13)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8月 19日條, “十九日 更欲登覽漢拏上峯 凌晨促行 單騎馳至中臺 陰雲四塞 還下擧巖谷俗名들림괴 …”.

14) 金倣 著, 金益洙 譯, 『蘆峰文集』 卷1, 詩集, 濟州文化院, 2001, 3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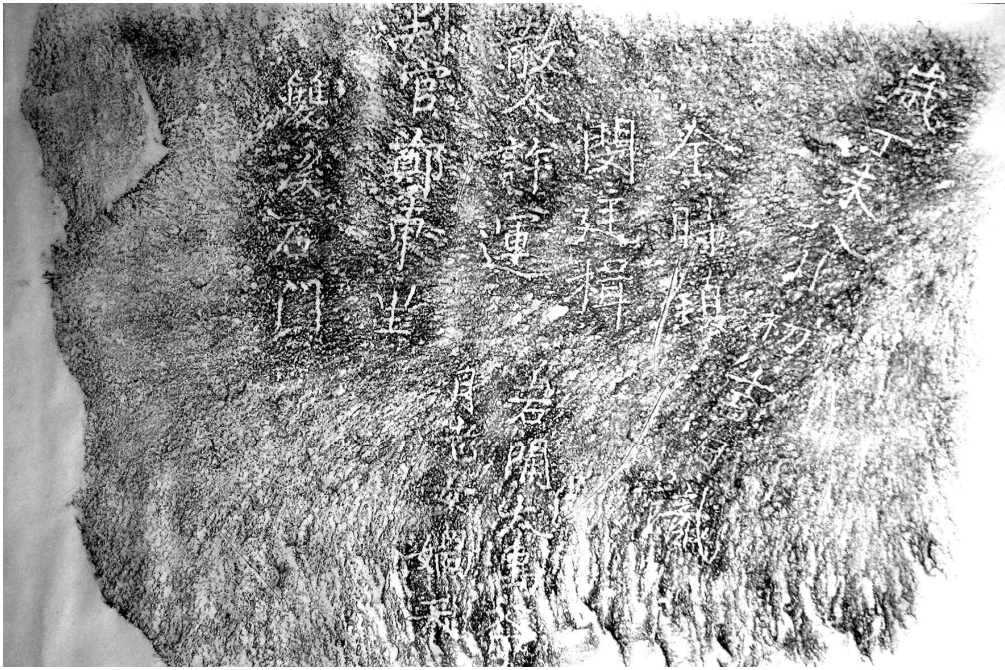
15) 李源祚, 『耽羅志草本』 卷2, 濟州, 形勝條.

1785.5~1786.4)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선문 서쪽 천장에 橫으로 새겨져 있는 ‘訪山門 題額⁶⁾ 위로 尹得達 목사 일행의 이름이 새겨진 題名이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천정에 제액과 제명을 나란히 새겼다는 것은 초기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다. 그리고 방선문이라는 명칭은 곧 민간에서 ‘들림과’라 부르던 지명이 이익태 목사 이후 지방관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제주를 신선의 고장으로 인식하였던 시대적 풍조와 맞물려 의미가 부여된 명칭임을 알 수 있다.¹⁷⁾

방선문에 조성된 36건의 마애석각을 시기별로 보면 18세기 14건, 19세기에서 1910년 이전까지 22건이다.¹⁸⁾ 이 가운데 현존하는 最古의 것은 제주관관 鄭東里(재임: 1726.9~1728.6)가 주도하여 조성한 석각이다.¹⁹⁾ 刻文의 내용은 ‘雙溪石門이라는 제액을 먼저 새기고, 左에서 右

-
- 16) 본고에서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마애석각에 새겨진 刻字를 성격에 따라 題名·題詠·題額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題名은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 題詠은 시를 새겨 넣은 것, 題額은 방문한 장소나 그곳에 소재하는 암석 등에 대해 이름을 命名하여 새겨 넣은 것을 뜻한다.
- 17) 방선문 제액에 대한 문헌기록은 崔益鉉의 「遊漢拏山記」에 “當中有石橫跨作門形 長廣容數十人 高可二丈 夾刻訪山門及登瀛丘六字 亦有前人題品 卽十景之一門”이라는 기록이 최초이다. 이후 金錫翼이 저술한 「破閑錄」에 “登瀛邱 … 左右懸崖中有大石俯作門名曰訪山 …”이라는 기록이 확인될 뿐이고, 그 최초 命名者에 대한 문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방선문 제액이 윤득규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추정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제액을 쓰고 다음에 제명을 한 방선문 제액의 새김 용례는 같은 장소에 새겨진 ‘雙溪石門’ 제액(부록 <별표-1> 방선문, 1번)을 비롯하여 제주시 용연의 ‘仙遊潭(부록 <별표-1> 용연, 1번)과 ‘碧泓(부록 <별표-1> 용연, 2번)의 용례와 동일하다. 그리고 방선문의 다른 이름인 쌍계석문, 용연의 다른 이름인 선유담, 벽홍이라는 이름 또한 방선문 제액과 마찬가지로 마애석각으로만 남아있고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명칭이기도 하다. 현재 통용되는 방선문이라는 명칭이 18세기 후반 윤득규에 의해 명명되었고, 이후 근 1세기가 지나 최익현에 의해 문헌에 언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8) 방선문 이하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지에 대한 장소별 조성 개체수와 내용에 따른 題名·題詠·題額 등의 분류는 부록의 <별표-1>과 <별표-2> 참조.
- 19) 이영배가 방선문 바닥 암면에 새겨진 제액을 광해군 때 제주관관 金緞의 5언 절구로 소개한 이래, 이것이 방선문 最古의 마애석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 제액의 간지 다음에 篆書로 새겨진 이름자는 金衡秀로 판독이 가능하다.

로 함께 간 일행 3인의 이름과 그 하단에 5언 2행시를 새겼으며, 끝으로 방문하여 새긴 날짜 '歲丁未八月初吉日識'를 새겨놓았다.



〈사진 2〉 방선문 정동리 판관 일행 석각(탁본)

36건의 마애석각을 새겨진 문구의 내용으로 분류해 보면 방문자의 이름만을 새긴 題名이 29건으로 가장 많다. 29건 중 單名으로 방문 주체의 이름만 홀로 새겨놓은 석각은 8건, 2인 이상 聯名 되어있는 刻字는 21건이다. 다음으로 방문자의 이름과 함께 시를 새겨놓은 題詠이 4건²⁰⁾, 제액·제영·제명을 아울러 새겨놓은 석각이 3건이다.

2) 백록담

백록담은 현재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토평동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제작된 옛 지도에는 백록담의 경계가 현대지도처럼 명확하게

김치의 제영이 아님이 확실하다.

20) 개체수를 파악함에 있어 다른 암면에 새겨져 있더라도 동행 인물로 판단된 경우 1건으로 처리했으나, 題詠의 경우는 동행 인물이라 하더라도 각각 1건씩 별도로 처리했다.

구획되어있지 않다. 성종 때 제주목사 李約東이 현 제주시 아라동 소재 산천단에 漢拏山神廟을 창건하여 이곳에서 한라산신제를 봉행²¹⁾할 때까지 조선왕조 개국 이래로 제주목사의 주제 하에 백록담 북벽에서 한라산신제를 지속적으로 지냈음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²²⁾ 제주목에서 이곳 북벽에서 한라산신에게 기우제를 지냈음²³⁾을 감안한다면 백록담은 제주목의 관할구역이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사진 3〉 백록담 조영순 사적 기록 석각
(탁본. 오문복 소장)

지리서와 읍지류에 있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山川條의 한라산 항목에 백록담에 대해 “산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 5월에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야 한다.”는 간단한 해설이 보이며, 이후 효종 때 李元鎭의 『耽羅志』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외에 현종 때 이원조의 『耽羅志草本』에는 앞서 기술한 내용 외에 춘분과 추분에 백록

21) 李源作, 앞의 책, 濟州, 壇廟條

22) 『太宗實錄』 卷35, 太宗 18年 4月, 辛卯條, “漢拏祭 依羅州錦城山例 載諸祀典 春秋致祭”; 『世宗實錄』 卷46, 世宗 11年11月 癸丑條, “禮曹啓 言者以爲 前此京外祭享靈驗處 革除不祀 未便 願自今訪問山川奇巖龍穴寺社等靈驗處 設祭室及位版 每四仲吉日 遣使行禮 命議之 卞季良以爲 … 濟州漢拏山 … 從之”.

23) 金尙憲, 「南槎錄」, 『淸陰先生遺集』 卷2, 辛丑(1601) 9月 25日 戊午條, “潭之北隅有壇 本州常時祈雨處也”.

담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추가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숙종 때의 이익태는 탐라 10경의 하나로 백록담을 꼽고 있다.²⁴⁾ 쉬이 오를 수 없는 곳이지만 조선시대 이래 名山大川에 대한 典禮와 기우제 등을 지내기 위해 지방관 이하 수행인원 등 사람들의 자취가 꾸준히 이어져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白鹿과 神仙의 전설²⁵⁾이 더해져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 등정을 목표로 한 기행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지게 된다.

현재 전하는 최초의 등정기로는 林暎(1549~1587)가 1578년(선조 11) 2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등정 기록을 기록한 등정기가 「南溟小乘」에 전한다. 이후 1601년(선조 34) 안무어사로 다녀간 金尙憲, 1609년(광해군 1) 제주판관 金緻,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李衡祥, 1841년(헌종 7) 李源作, 1875년(고종 12) 해배인 崔益鉉 등의 등정기가 지속된다. 조선시대 내내 이뤄진 한라산 등정은 결국 마애석각이 오래전부터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김치의 「遊漢拏山記」에 “又掃石題名 以記勝跡”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題名이란 붓으로 돌 위에 이름을 썼거나 연장을 이용해서 이름을 새긴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17세기 초반에 이미 遊山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바위나 암벽에 새겨 놓는 행위가 제주지역에도 來島人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록담의 마애석각은 동벽에 대부분 집중되어 분포하며 북벽과 동벽, 북벽과 서벽 사이에도 소수가 분포한다. 조선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19건의 석각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8세기 11건, 19세기 8건이다. 이 가운데 最古의 것은 1731년(영조 7)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趙觀楸 유배기간:1731.12~1732.6)이 1732년(영조 8) 3월 한라산을 등정하여 大司憲으로써 간쟁한 일 때문에 제주에 유배 와서 정상을 오르게 되었다는

24)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11月 13日條, “耽羅十景圖序 … 白鹿潭”.

25) 李元鎮 『耽羅志』, 濟州, 題詠, “金緻遊漢拏山記 … 洞裏 有白鹿 好食瀛洲草 往人或見之 此實神仙所居之地也 …”; 李源作, 앞의 책, 濟州, 形勝, “白鹿潭 在漢拏山絕頂 諺傳 郡仙飲白鹿於此 故名 …”.

事跡을 기록한 것이다.²⁶⁾

19건 중 방문자의 이름을 새긴 題名이 13건으로 가장 많은데, 제명 중 單名으로 새겨진 석각은 5건, 2인 이상 聯名되어 있는 것은 8건이다. 다음으로 이름과 함께 事蹟을 새겨놓은 것이 4건, 題詠을 새겨 넣은 것이 2건이다.

3) 용연

용연은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하며 한라산의 탐라계곡에서 발원한 한천(大川)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제주목 관아 서문 밖 인근 바닷가에 위치하면서 산과 바다의 경치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른 시기에 마애석각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용연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산천조에 한천(大川)을 소개하면서 “龍湫가 있어 가뭄이 든 해에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라는 기록이 문헌상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후기에 간행된 읍지류에 답습되어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곧, 효종 때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용연을 독립해서 다루지 않았고 호칭 또한 龍湫라 하여 산천조 한천(大川) 항목에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²⁷⁾

26) 한라산 정상 동벽에는 조관빈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석각과 함께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그의 조카 趙榮順(유배기간: 1754.11~1755.3)의 사적을 기록한 마애석각이 남아있다. 또한 백록담 물가 근처 바위에는 1811년(순조 11) 제주목사로 부임한 조영순의 아들 趙貞喆이 자신의 사적을 새겨놓은 마애석각이 존재한다. 조정철의 마애석각이 새겨진 바위는 본래 정상 동벽에 있던 것이 굴러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濟州島 磨崖銘』, 1999, 125쪽). 조관빈·조영순·조정철 3대의 석각이 동일한 장소에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3인에 대한 석각은 글씨체와 문장형식이 동일하다(부록 <별표-1> 백록담, 1·3·12번 참조). 때문에 본 마애석각 3건에 대해서는 가장 나중에 입도했던 조정철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조정철이 제주 유배(유배기간: 1777.8~1790.9) 당시 남긴 기록인 『靜軒瀛海處坎錄』에 게재된 시 중에 “耽羅是兩從祖與先君子 曾謫之地也 官樓有扁詠 仙嶽留題刻 島人至今盛傳 不勝感古悲今之懷 敬用悔軒集中韻”이라고題한 7언 율시가 확인된다. 이에 의거하면, 3인의 마애석각은 동일인물에 의해 새겨진 것이 아니라 3인 각자에 의해 조성된 것이고, 조관빈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이 현존하는 백록담 최고의 마애석각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사진 4〉 용연 이괴 목사 일행 제명

숙종 때李增의 『南槎日錄』, 1679년(숙종 5) 12월 23일 갑신조와 1680년(숙종 6) 2월 26일 병술조를 보면 翠屏潭과 龍淵이라는 표현이 각각 확인된다. 1702년(숙종 28) 李衡祥의 『耽羅巡歷圖』와 1765년(영조 41) 尹蕃東의 『增補耽羅志』, 제주, 산천조에는 취명담으로 소개되었고, 1780년대의 『제주읍지』에는 산천조에 한천大川을 소개하면서 龍湫라 표기하였으며, 1793년(정조 17) 경에 편찬된 『濟州大靜旌義邑誌』에 비로소 용연이라 명명하여 용두암龍頭과 독립해서 다뤘고,²⁸⁾ 이후 현종 때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과 현종과 철종 연간 張寅植의 『耽羅志』에 지속적으로 용연이라 명명하며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용연에는 행서체 ‘翠屏潭’ 刻字가 16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새겨져 있었다. 선조 때 문장가인 林暎(1549~1587)는 제주를 유람하고 「남명소승」을 남겼는데, 여기에 翠屏潭 제하의 5언 율시로 용연의 풍광을 읊으면서 그 詩序에 “岩留三字 龍臥千秋”라고 기록하였다.²⁹⁾ 여기에

2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山川, “大川 在州西三里 旱乾雨漲 水到凹處爲瀦 其深無底名曰龍湫 歲早就壽”; 李元鎮, 앞의 책, 濟州, 山川, “大川 在州西二十 末流爲大甕浦 其下有龍湫 深無底長百步餘 旱則壽雨有應”.

28) 韓國學文獻研究所 篇, 『濟州大靜旌義邑誌』, 形勝條

서 三字는 곧 翠屏潭 세 글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임제가 남긴 5언 읍시는 용연의 풍광을 읊은 최초의 기록이다. 이어서 1694년(숙종 20)에 제주에 왔던 이익태 목사는 耽羅 10景의 하나로 취병담을 꼽고 있다.³⁰⁾ 그 뒤 제주목사 이형상 또한 “뱃놀이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³¹⁾으로 소개하였고 『탐라순력도』에는 屏潭泛舟의 자취를 화폭에 담아 전하고 있다. 이후 병담범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龍淵夜泛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瀛洲 12景의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³²⁾

용연의 마애석각은 속칭 ‘구름다리’ 안쪽(남쪽)의 동벽과 서벽에 고루 분포하는데, 특히 이곳의 題永은 모두 동벽에만 새겨져 있다.

조선후기에 조성된 19건의 석각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7세기 3건, 18세기 13, 19세기에서 1910년 이전까지 3건이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17세기 마애석각 3건이 모두 용연에 조성되었다. 이 가운데 最古의 것은 1658년(효종 9) 9월 제주목사 李禕가 주체가 되어 새긴 석각이다. 상단에 가로 84cm, 세로 30cm로 암면을 다듬어 橫으로 ‘仙遊潭을 제액하고, 그 아래에 동행한 이들의 이름과 방문한 날짜를 기록하였다. 刻文인 경우 刻字 하나의 크기가 가로 12cm, 세로 14cm의 크기로 모서리

29) 현재 제주시 용연에는 취병담이란 刻字가 둘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조선 영조 때 제주목사 洪重徵(재임: 1738.10~1739.9)이 새긴 초서체 각자이다. 임제가 본 각자는 행서체 각자이다.

30)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11月 13日條, “耽羅十景圖序 … 翠屏潭 … 水天一色 烟霞微茫 海外遊賞 最稱絕勝”.

31) 李衡祥, 『南宦博物』, 志勝, “翠屏潭 一名 龍湫 在州西城二里 此爲漢川下流 兩崖削石壁立數十丈 下有清潭 長數百間 廣一百尺 水深亦數丈 中多礮石 杜冲 柑榴 蘿生兩岸 舟遊甚適”.

32) 전통적으로 제주도 景觀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絶景을 10개, 혹은 12개 所를 취하고, 이를 瀛洲十景 혹은 十二景이라 일컬어 왔다. 이들 제주의 절경은 각종 史書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서로 차이가 난다(제주시·제주발전연구원, 『용연·용두암 유적지 문화재자원 조사』, 2000, 33-35쪽). 高禎鐘 편찬의 『濟州島便覽』(영주서관, 1930)에서는 瀛邱春花·古藪牧馬·靈實寄岩·鹿潭晚雪·山房窟寺·城山日出·紗峰落照·山浦釣魚·橘林秋色·正房瀑布·西歸鎮老人星·龍淵夜泛 등을 영주 12경으로 들었다. 『제주도편람』의 영주 12경은 해방 이후 淡水契에 의해 편찬된 『增補耽羅誌』(1954년)에 그대로 답습되어 기록되었다.

진 세 벽면을 이용하여 각을 새겼는데 벽면의 총 길이는 가로 약 220cm, 세로 약 90cm 규모이다. 선유담 각자의 1字당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5cm이다. 넓은 암면을 이용하여 각자를 이렇게 크게 새길 수 있었던 것은 이과 목사 이전에 새겨진 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19건의 석각 중 題名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제명은 單名으로 새겨진 석각이 3건, 2인 이상 聯名되어 있는 석각이 7건이다. 다음으로 방문한 이의 이름과 함께 題詠을 새겨 넣은 것이 4건, 장소의 이름을 명명한 題額과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 4건, 사적을 새겨 넣은 것이 1건이다.

2. 기타

1) 산지천

산지천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州城 동쪽에 있다.”는 간략한 소개와 함께 山底川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효종 때 이원진 『탐라지』에는 “성 동쪽 1리에 있으니 곧 嘉樂泉 하류이다. 2리쯤 흐르면 바다로 들어가 건입포가 된다. 지금은 성 안에 있다.”라고 하였다. 가락천은 현 오현단 인근 동쪽에 위치한다. 산지천이라 부르는 내의 범위가 현재 제주시 아라동 338번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아라동과 이도동, 일도동과 건입동 경계를 이루면서 제주항으로 흘러 들어가는 내³³⁾로서의 현재 산지천과는 다른 경계를 보이고 있다.

산지천 마애석각은 현재 제주시 건입동 소재 광제교 아래 朝天石이라 불리는 석상이 세워진³⁴⁾ 砥柱岩이란 바위에 3건이 확인된다. 산지천은 1960년대 후반 覆蓋되면서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섰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복개구조물이 철거되어 산지천이 복원 정비되면서 지주암이라 불렀던 바위가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지주암에 새겨진 마애석각

33) 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97쪽의 주)364.

34) 현재 원형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산지천에는 이것을 대신한 모형이 세워져 있다.

은 그 존재가 사료에만 남아 있었고 실체가 잊혀졌던 석각이다. 바위 윗면에 '朝天石'으로 추정되는 초서체로 새겨진 석각 1건, 그리고 측면의 북쪽과 서쪽에서 각각 '砥柱岩', '嘉樂川'이라 새겨진 석각이 확인된다. 朝天石으로 추정되는 각자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복개 당시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砥柱岩 각자도 훼손이 되어 砥지는 판독할 수 없다. 嘉樂川 각자만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사진 5〉 산지천 지주암

지주암 각자는 목사 金 敞이 1735년(영조 11) 제주 東城 안에 三泉書堂을 건립하고 이곳 유생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학문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군자의 모습을 비유하여 제액한 것이다.³⁵⁾ 높이 약 180cm, 윗너비 270~330cm의 바위인 이 지주암을 마주하여 동쪽 언덕에 삼천서당이 있었다.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대부분이 경승지를 방문한 이들의 개인

35) 砥柱는 중국 山西省 平陸縣 東南쪽 황하 중류 가운데 서 있는 산으로, 후에 황하의 격류 속에서도 곳곳이 서 있는 모습을 세파에 휩쓸리지 않는 고고한 군자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中文大辭典』(6), “砥柱. 山名 在山西省平陸縣東南 當黃河中流 南與河南省接界 後以喻堅毅任重守節者也[史記, 夏紀]).

적 흥취로 제명 혹은 제액, 제영한 것이지만 산지천의 지주암 마애석각은 경승지가 아닌 제주읍성 내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제주지방 최고 통치자인 목사가 서당의 유생들에게 황하의 격류 속에서도 곳곳이 서 있는 砥柱山처럼 지조를 꺾지 않는 군자가 되라는 의미로 문자를 암석에 새겼다는 점 등에서 이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嘉樂川’과 ‘朝天石’ 각자 또한 김정 목사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³⁶⁾, 이 또한 기존 경승지의 제액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³⁷⁾

2) 오현단

五賢壇은 1871년(고종 8) 橋林書院이 철폐된 이후 五賢의 위패를 모실 곳이 없게 되자 1892년(고종 29) 제주 조천읍 출신의 鄉士 金義正(1844~1925)이 경기도 양주의 石室書院에서 通狀과 規式을 베끼고 와서 제주유림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오현의 위패를 대신하여 畝豆石을 세워 제사를 지내면서 생겨난 이름이다.³⁸⁾

오현단의 전신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때 제주에 유배되어 賜死된 沖庵 金淨을 배향하기 위해 1578년(선조 11)에 제주판관 趙仁後가 창건한 沖庵祠를 1665년(현종 6)에 판관 崔鎮南이 藏修堂 남쪽으로 옮겨 세우게 되면서 굴림서원으로 賜額된 것이 시초이다. 金淨을 비롯하

36) 김정 목사의 문집을 보면 그가 제주목사 재임 당시 새긴 마애석각에 관한 글 [銘]이 있는데, 이는 여느 문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삼천서당 주변 절벽에 새겼다는 中藏屏, 龍鱗屏, 虎班屏 등 지금은 사라져 버린 마애석각의 銘과 함께 가락천, 지주암의 명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金 敏, 『蘆峯先生文集』 卷2, 銘 참조).

37) 조천암 마애석각에 대해서는 현종 때 제주목사 이원조의 기록에 처음 보인다(李源作, 앞의 책, 濟州, 橋梁, “山底橋 在東城內 牧使金 敏改名光霽橋 橋上有 砥柱巖 刻朝天石三字”). 조천암이라는 글자를 무슨 이유로 김정 목사가 새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다. 현재 이곳에는 庚子春牛山書라고 새겨져 있는 朝天石 模本이 세워져 있는데, ‘조천석’ 석각은 이와는 달리 지주암 바위 윗면에 초서체로 새겨진 글자를 가리킨다. 한편, 2001년 漢拏日報社遺蹟址標石 세우기推進委員會에서 세운 표지석에는 지주암을 ‘朝天石 제사터’로 소개하면서 “홍수와 재앙을 막아주도록 하늘에 기원하던 신앙석”이라 하여 朝天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38) 金義正 著, 白圭尙 譯, 『海隱文集』, 濟州文化院, 2014, 150쪽.

여 宋麟壽·金尙憲·鄭蘊 등 四賢을 봉향하고, 1695년(숙종 21)에 宋時烈을 追享하면서 제주유림의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왔다.



〈사진 6〉 오현단 증주벽립·광풍대 석각

오현단 마애석각은 모두 2건으로 속칭 ‘병풍바위’에 曾朱壁立 각자가 새겨져 있고 바로 앞 독립바위에 光風臺 각자가 새겨져 있다. 오현단 曾朱壁立 각자는 尤庵 宋時烈의 필적으로, 1786년(정조 10) 현 제주시 도련동 출신의 邊聖遇(1721~1787)가 성균관 直講으로 있을 때 우암이 서울에 거처하던 舊基 암벽에 새겨진 각자를 模寫하여 온 것을 1856년(철종 7) 목사 蔡東健이 주도하여 새긴 것이다. 공자의 적통인 曾子和 공맹 유학의 요체를 집대성한 朱子の 곧은 절개를 생각하며 증자와 주자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우암의 곧은 지조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³⁹⁾ 이는 앞의 지주암 각자의 조성 의도와 같은

39) 우암 구기 증주벽립 마애석각은 현재 서울특별시 明倫洞 1街 5-99에 소재하는 화강암 암벽에 가로 약 50cm, 세로 약 60cm의 크기로 새겨져 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7호이다(서울특별시, 『서울文化財大觀』, 三省出版印刷株式會社, 1987, 370쪽).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왕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1689년(숙종 15) 2월 4일 제주 안치에 명해지고, 같은 해 6월 3일 서울로 압송 도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절명했다. 1695년(숙종 21)에 굴림서원의 四賢에 추향되

맥락으로, 유교를 통한 지방민의 교화라는 조선왕조의 정치적 이상이 조선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증주벽립 각자에는 석각 조성을 주도한 당시 목사와 판관, 그리고 간지가 새겨져 있어 연대 추정이 가능하지만 광풍대 각자인 경우 제액만 있고 주도 인물과 간지가 새겨져 있지 않다. 고증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광풍대의 ‘光風’은 ‘光風霽月’의 뜻으로 인품이 잘 닦인 군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그 語義로 미루어 서원이 훼손되기 전, 증주벽립 각자 조성과 같은 시기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오라동 가카우니

오라동 ‘가카우니’는 제주시 오라동 제주교도소 동쪽 200m 지점 속칭 ‘창꿈소(沼)’ 부근을 이르는 속명이다. 이곳은 예전 오라동 주민들이 여름에 가서 물맞이를 하던 피서지라고 하며, 예전 오라동 주민들이 사용했다는 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覺夏泉 각자가 샘이 있는 자리 위 절벽 암면에 새겨져 있다. 속명 ‘가카우니’를 音借하여 오라동의 鄉士 李膺鎬(1871~1950)가 이



〈사진 7〉 오라동 가카우니 영천 석각(탁본)

면서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운과 더불어 五賢으로 숭앙되었다.

름을 지어 새긴 것이다.⁴⁰⁾

이곳에는 이응호의 아버지인 李基璫(1834~1886)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새긴 행서체 靈泉 刻字가 있으며⁴¹⁾, 연대미상의 해서체 음각 小瀛邱 각자와 초서체 양각 半仙 각자 등도 새겨져 있다.

4) 탐라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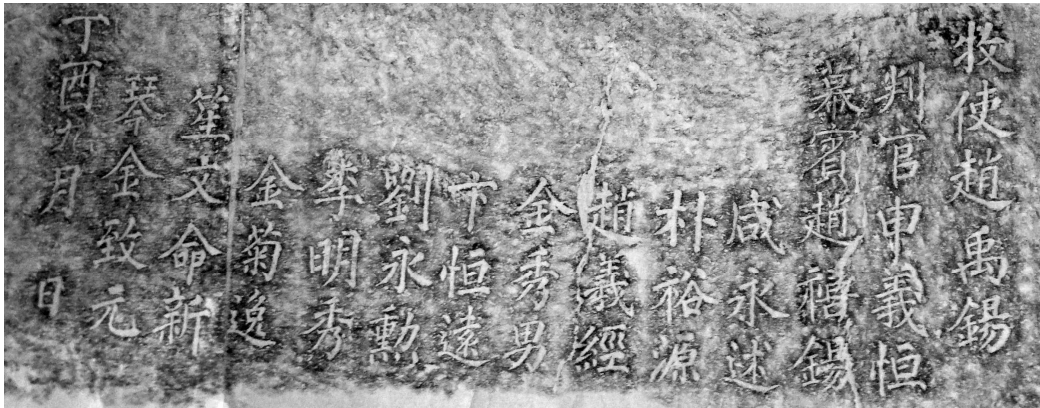
탐라계곡 마애석각은 제주시 관음사 등산로 입구에서 약 3.2km 거리의 한천 상류 동벽에 새겨져 있다. 이곳에는 1837년(헌종 3) 9월 제주 목사 趙禹錫 일행의 이름을 새긴 석각 1건 외에도 연대미상의 隱山洞 제액, 일제강점기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현 제주시 애월읍 출신의 張漢奎(1880~1942) 일행 제명 등 3건의 석각이 더 확인된다.

탐라계곡은 조우석 목사에 의해 새롭게 개척된 探勝處의 하나라고 추정된다.⁴²⁾ 하지만 제주읍성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으로 여겨진다.

40) 覺夏泉에 대한 기록은 제주시 오라2동에 거주하는 李鍾億(1940년 생)의 구술 증언(2012.10.5.)에 따랐다.

41) 靈泉 각자에 대해서 이종억은 “고조부인 이기온이 눈병이 있었는데 이곳 샘물에 눈을 씻으니 효험이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새기게 되었다. 종이를 직접 대고 각을 새겼기 때문에 원본이 없는 것이다.”(2012.10.5.)라고 증언하였다. 이후 2013년 4월 26일 一讀한 이응호의 『震翁先生詩稿』(이종억 소장)에 필사된 靈泉 제하 7언 절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壁間承算石頭眠 尋蹟重來意黯然 小子服膺何敢慢 久藏秋筆亦奇緣”. 그리고 최근 이응호가 남긴 필사본 『鹿潭實記』의 영인본을 입수하였는데, 이 책 紀行條에 “靈泉 右在井室村覺夏源之西巖 而故參判金秋史之遺墨也 仍刻焉耳”라고 하였다. 집안에 전하는 구전과 남겨진 기록을 통해 靈泉 각자가 추사의 필적임이 확증된다. 이기온의 추사필 입수 경위는 추사의 문하였던 李基肇(1826~1849)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기조는 이기온의 친형이다.

42) 조우석 목사가 남긴 석각은 탐라계곡 외에 백록담과 산방굴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 중 백록담의 석각은 1837년(헌종 3) 5월에 새겨진 것이다. 이를 통해 탐라계곡은 조우석 목사가 한라산 등정 또는 하산 길에 눈여겨보았다가 일부러 찾아간 장소로 추정된다.



〈사진 8〉 탐라계곡 조우석 목사 일행 제명(탁본)

5) 용수리 절부암

절부암 마애석각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바닷가 속칭 ‘영덕동산’에 있다. 제주도 유일의 篆書體 석각이다. 1869년(고종 6) 제주판관 慎裁佑⁴³⁾가 업무 姜士喆의 처 高氏의 節行을 기리기 위해 새긴 것이다. 절부암 각자가 새겨진 바위와 바로 인접한 동쪽 암벽에 慎裁佑가 撰했다는 내용도 함께 새겨져 있다.

유교적 사상에 입각한 조선사회는 충·효·열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전역에도 숭한 효열·열녀·충효비가 세워져 있다.⁴⁴⁾ 한경면 용수리 節婦岩 마애석각의 주인공 절부 고씨는 절부로 표창을 받을 만한 실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려되지 못했다.⁴⁵⁾ 이에 신재우 판관이 석각을 조성하게 하고 마

43) 거창신씨 제주도문중의 世譜에 의하면 마애석각에서 확인되는 이름자 중 佑는 祐로 되어있다(居昌慎氏大宗會, 『居昌慎氏世譜』 卷2. 大譜社, 2009 참조). 또한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소재 그의 묘비에도 祐로 되어있다. 그런데 절부암과 절부 고씨의 비문뿐만 아니라 『국조문과방목』에도 祐가 아닌 佑로 되어있다. 裁祐는 譜名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석각에 새겨진 이름에 따라 ‘佑’로 표기하였다.

44) 현재 제주지방에 전하는 조선시대 충효열에 대한 정려비는 효자 21기, 효열 20기, 열녀 20기, 충효 4기, 충의 6기가 전한다(홍기표,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6 참조).

45) 절부 고씨의 비문 또한 신재우 판관이 지었는데 비문의 말미에 “以若村婦能盡殉節 誠一代之所無 亘千古而罕有 營府題意 已多嘉尚 繡道完文 尤用激勸 然旌

을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여 그 절개를 본받게 하였다.⁴⁶⁾ 절부암 마애석각은 旌閭를 대신하여 새긴 독특한 유형의 석각이다.



〈사진 9〉 용수리 절부암 석각

Ⅲ. 대정·정의현 관내 마애석각

1. 대정현

대정현은 지역적으로 동쪽은 정의현 경계까지 57리, 남쪽은 바다까지 10리, 서쪽은 제주목 경계까지 37리, 북쪽은 제주목 경계까지 32리

門之狀請 事係關重 而既無子女 終鮮親戚 卓絕風聲 幾將泯滅于斯矣 余常慨然 乃此勒石 敢題黃絹之辭 用來玄冥之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곧, 절부 고씨의 순절이 아무리 가상하다고는 하지만 정려를 청하는 일이 중대한 사항이므로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데, 자녀가 없고 친척이 적어 정려를 기다리다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행적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을 염려하여 글을 지어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절부암 마애석각은 절부 고씨가 끝내 정려되지 못하여 정려비를 세울 수 없게 되자, 신재우 판관이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절부가 목맨 자리의 바위에 글자를 새기게 한 것으로 보인다.

46) 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濟州道 磨崖銘』, 1999, 153쪽.

로, 47) 종6품 현감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정의현에 비하면 마애석각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산방굴사 1곳에 집중 조성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창천리 창고천과 천제연에 각각 1건씩 그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선후기 대정현 관내 마애석각 분포 현황

계(件)	산방굴사	창천리 창고천	천제연
16	14	1	1

1) 산방굴사

산방굴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山房山 남측면 약 150m 중턱에 있다. 세간에서는 고려 말 중국에 유학했던 法僧 慧日이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고 전해진다. 48)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현 동쪽 10리에 있는데 둘레가 9리이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한라산의 한 봉우리가 쓰러져서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한다. 그 남쪽 비탈에 큰 돌구멍이 있는데 물이 돌 위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져서 샘이 되었다. 어떤 중이 굴 가운데에 집을 짓고 살아서 이름



<사진 10> 산방굴사

47) 李元鎮 앞의 책, 大靜縣誌

48) 淡水契 編 『增補耽羅誌』, 1.地理 附. 名所古跡條

을窟庵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⁴⁹⁾

효종 때의 이원진 『탐라지』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하며, 이원진 자신이 읊은 5언 율시가 전한다. 숙종 때의 이형상은 『남환박물』에서 산방산을 誌勝條에 기술하면서, 산방굴사에서 探勝의 자취를 『탐라순력도』에 山房盃酌으로 남기고 있다. 헌종 때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서도 산천조에 다루지 않고 形勝條에서 산방굴사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다만 내용은 앞선 읍지류의 답습이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金自祥의 山房記를 인용하며 산방굴사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⁵⁰⁾ 실록에 의하면 김자상은 세조 때 인물이다.⁵¹⁾ 이런 점에서 산방굴사의 존재가 조선초기에 이미 중앙에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숙종 때의 제주판관 南九明(재임: 1712.10~1715.5)이 남긴 賦 續壯遊 題下에서 산방굴사와 관련하여 “유람 왔던 이들이 써놓은 이름은, 닳아져서 반은 글자도 없네.”⁵²⁾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로 보아 산방굴사에는 현재 확인되는 마애석각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마애석각이 조성되었던 것 같다.

여하튼 산방굴사는 앞의 용머리해안과 어울리는 빼어난 경치로 인해 조선후기까지 관내 대정현감의 勝遊處이기도 하였는데,⁵³⁾ 마멸되어 판독할 수 없는 석각과 이름만 새겨져 있어 조성연대가 미상인 것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석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대정현감 白宅仁(재임: 1748.7~1751.4)에 의해 조성된 제명이다. 동행한 아들 師喆 외 1인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산방굴사 마애석각 14건에 대해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8세기 5건, 19세기에서 1910년 이전까지 9건이다. 내용으로는 방문자의 이름

4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大靜縣, 山川條

50) 앞의 책, 같은 조

51)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2月 27日 戊辰條에 原從功臣 3등으로 녹훈되었는데, 그 당시 그의 관직은 五衛에 속한 정5품 무관직인 司直이었다.

52) 南九明, 『寓庵先生文集』 卷1, 賦, “...卓錫去騰空 古窟猶雙置 遊人記姓名 漫滅半無字”.

53) 金仁澤, 『大靜縣衙中日記』, 1817年 9月 15日條, “快晴 行望賀禮 與遮歸慕瑟兩鎮長 各持酒肴 登山方窟寺翫景 仍登龍頭峯 望洋觀魚游”.

을 새긴 題名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이중 單名으로 새겨진 석각은 3건, 2인 이상 聯名되어 있는 석각은 7건이다. 다음으로 이름과 함께 題詠을 새겨 넣은 마애석각이 4건이다.

2) 창천리 창고천

倉庫川은 한라산 남서쪽 사면 삼형제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을 관통하여 안덕면 감산리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창고천이 지나는 감산리 앞 일주도로 맞은편의 안덕계곡은 계곡 양쪽에 형성된 상록수림과 하천의 맑은 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데, 1986년 천연기념물 제 37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읍지류에는 창고천의 소재처만 山川條에 소개되어 있고⁵⁴⁾ 이곳의 풍광을 따로 소개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곳의 마애석각으로는 감산리와 인접한 창천리 앞 창고천 변 암벽에 새겨진 유배인 任觀周의 5언 절구 제영 1건이 유일하다. 임관주(1732~?)는 1767년(영조 43) 正言으로 영조가 지은 「裕昆錄」의 내용과



〈사진 11〉 창고천 유배인 임관주 제영

54)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창고천이 甘山川, 이후 이원진·윤시동·이원조 각각이 편찬한 읍지에는 ‘紺山川’으로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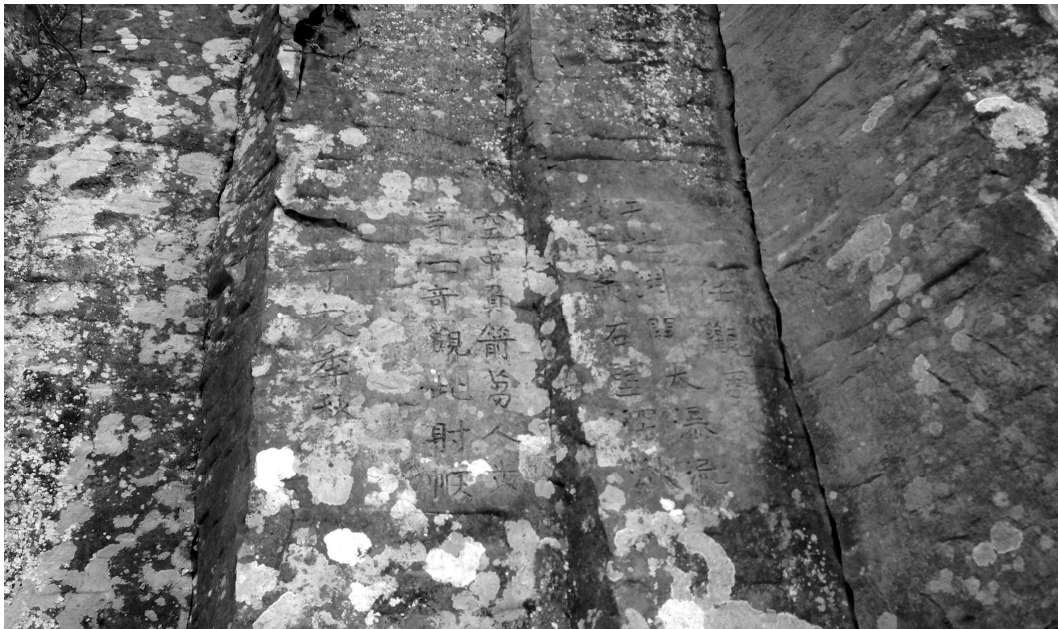
수원부사의 천거 미속행에 따른 영조의 처분과 언관에 대한 영조의 태도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조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⁵⁵⁾ 이 상소로 인해 6월 대정현 창천리에 유배되었다. 하지만 유배된 지 석달 만인 9월에 늙은 아버가 있다 하여 방면되었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1767년(영조 43) 창천리 謫所에서 해배되어 떠날 때 그 기쁨에서 오는 흥취를 시로 읊어 새긴 것이다. 임관주는 이곳을 始發로 하여 산방굴사·천제연·용연·백록담 등에 제영을 남기고 떠났다.

3) 천제연

천제연은 현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재하며 상·중·하 3단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제1폭포는 높이 22m, 깊이 21m의 천제연을 이루고, 그 못물이 다시 제2폭포와 제3폭포를 이루며 바다로 흘러든다.

천제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선조 때 임제의 『남명소승』에 天帝潭으로 처음 문헌에 소개



〈사진 12〉 천제연 유배인 임관주 제영

55) 『英祖實錄』 卷109, 英祖 43年 6月 9日 辛丑條.

된 이후,⁵⁶⁾ 이를 선조 때 제주어사 김상헌이 『남사록』에 인용하여 소개하였고,⁵⁷⁾ 이후 숙종 때 제주어사 李增이 정의현 소재 天池淵과 同名의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7언 읍시 1수를 남겼다.⁵⁸⁾ 숙종 때 제주목사 이익태 또한 天池淵이라는 이름으로 탐라 10경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⁵⁹⁾ 이어서 이형상은 『남환박물』에서 小天池淵으로 소개하였고,⁶⁰⁾ 정조 때 윤시동 목사에 와서 天帝淵으로 명명⁶¹⁾된 이후 19세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⁶²⁾

이처럼 천제연의 존재가 16세기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문헌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곳의 풍광을 읊은 것으로는 문헌상에 이종의 읍시가 유일하게 보이며, 조선후기 마애석각으로는 영조 때 해배인 임관주가 1767년(영조 43) 9월 이곳을 探勝하며 1단 폭포 서쪽 암벽에 새긴 7언 절구 1수가 유일하다.

2. 정의현

정의현은 동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35리, 북쪽은 제주 경계까지 20리, 서쪽은 대정현 경계까지 95리, 남쪽은 바다까지 15리이다.⁶³⁾ 대정현과 마찬가지로 종6품 현감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관내에 수려한 勝地가 많이 있지만 정방폭포와 천지연 외에 마애석각의 분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56) 林悌, 「南溟小乘」, 『白湖先生文集』 附錄, 丁丑(1577) 11月 25日條, “往天帝潭俯見一水澄泓 大如天池 三面巖石簇立 皆成人面 洞府幽邃 到海可五六里 想有奇絕處 而無暇窮搜 若別佳人而去”.

57) 金尙憲, 앞의 책, 辛丑(1601) 10月 16日 庚辰條

58) 李增, 『南槎日錄』, 庚申(1680) 2月 21日 辛巳條

59)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11月 13日條, “耽羅十景圖序…天池淵…惜乎 其海外絕島 無人遊賞 而世罕識也”.

60) 李衡祥, 앞의 책, 志勝條

61) 尹著東, 『增補耽羅志』 第5, 大靜縣, 山川條

62) 李源祚, 앞의 책, 大靜, 形勝條

63) 李元鎮, 앞의 책, 旌義縣

〈표 3〉 조선후기 정의현 관내 마애석각 분포 현황

계(件)	정방폭포	천지연
3	2	1

1) 정방폭포

정방폭포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소재하는 높이 약 23m, 너비 약 10m의 폭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正毛淵으로,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正方淵으로 소개되고 있다. 모두 이곳의 물을 끌어 올려 물을 대는 논의 많다는 짚막한 기사가 실려있을 뿐이다.⁶⁴⁾ 이원진은 여기에 인조 때 제주목사 金壽翼과 자신의 7언 절구를 소개하였다. 이후 숙종 때 이형상은 『남환박물』, 誌勝條에서 바다로 쏟아



〈사진 13〉 정방폭포 마애석각 조사 장면 (2000년. 오문복 소장)

지는 정방폭포의 절경을 제1경이라 찬탄하였고,⁶⁵⁾ 현종 때 이원조는 『탐라록』에서 영주 10경의 하나로 正房觀瀑을 꼽고 있다.⁶⁶⁾ 이를 이어

64) 『新增東國輿地勝覽』, 旌義縣, 山川, “正毛淵 在縣西六十四里 淵深溉田甚多”;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山川, “正方淵 在縣西六十八里 有瀑布 引上流多溉田”.

65) 李衡祥, 앞의 책, 誌勝, “島中山形 舉皆頽塌 而獨此麓甚端正 一帶蒼壁 至海而盡 高可數十丈 上有盤松 下有巨浪 西巖有長瀑 八十餘尺 倒瀉海洋 眞可謂第一名區”.

66) 李源祚, 『耽羅錄』 上, 辛丑(1841) 閏3月 23日條

19세기 조천리 출신의 李漢雨가 이곳의 여름 풍광을 영주 10경 중 제4경인 正房夏瀑으로 品題하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⁶⁷⁾

김수익과 이원진 이후 숙종 때 제주어사 李燾 등이 읊은 7언 율시, 영조 때 제주목사 김정의 7언 절구, 현종 때의 제주목사 이원조의 7언 절구 등이 전하지만⁶⁸⁾ 마애석각으로는 18세기 후반 제주목사 李養鼎(재임기간: 1781.7~1782.1) 일행의 이름을 새겨놓은 석각 1건과 1903년(광무 7) 9월에 새겨진 제주목사 홍종우의 제명 1건만이 전해질 뿐이다.

이렇듯 정방폭포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이형상 목사 이후 절경으로 꼽혔지만 지리적으로 3읍의 治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마애석각 조성을 주도한 수령 등이 쉽게 채비하여 나설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애석각이 후기에 조성되었고, 그 개체수도 2건에 그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2) 천지연

천지연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소재하는 높이 22m, 너비 12m의 폭포이다. 계곡 양쪽에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난대림은 1966년 천연기념물 제37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천지연은 경승지로서 현재의 명성과는 달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언급이 없고, 선조 때 임제의 『남명소승』에 天池潭으로 처음 소개되고 있는 것이 문헌 기록상 최초의 기록이다.⁶⁹⁾ 이후 선조 때 어사로 왔던 김상헌은 『남사록』에서 임제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바다 밖 명소로 굳게 감춰져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서 그 좋은 경치를 아는 이가 거의 없다. 地誌에도 또한 빠뜨려서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라며 그 자리에서 7언 절구 1수를 지어 돌 위에 적어 두었다.⁷⁰⁾ 처음으로 천지연을 勝地로 品題한 것이다.

67) 吳文福, 『영주십경』, 제주문화, 2004, 4-5쪽.

68) 李燾, 앞의 책, 庚申(1680) 2月 20日 庚辰條; 淡水契 編 앞의 책, 1.地理, 名所古跡, 名勝條

69) 林悌, 앞의 책, 丁丑(1577) 11月 25日條, “蓐食而行 取海邊小路 往尋天池潭 乃舍馬攀崖而下 潭周數百步 深不可測 雙瀑飛落 長可百丈 聲若雷霆…”.

이후 천지연에 대한 지지의 기록은 효종 때 이원진의 『탐라지』에 비로소 天池淵이 “서귀포 가에 있다.”라는 간략한 소개⁷¹⁾와 함께 이원진의 7언 읍시 1수가 수록되었다. 하지만 1679년(숙종 5) 제주에 어사로 왔던 이증이 남긴 『남사일록』에 “내가 천지연에 이르러 보았더니 폭포의 길이는 박연폭포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맑고 아름다움과 기이하고 장엄함도 역시 박연폭포에 미치지 못하였다.”⁷²⁾라는 기록으로 보아 17세기 후반까지는 제주목사 등에게 탐승처로서 각광을 받지는 못한 듯하다. 이후 18세기에 들어와서 이형상의 『남환박물』, 誌勝條에 소개되면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듯하다. 현종 때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도 계속하여 形勝條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지연에는 1903년(광무 7) 제주목사 홍종우가 郡守 蔡洙康·읍인 康平權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제명한 마애석각 1건만이 확인된다. 홍종



〈사진 14〉 천지연 홍종우 목사 일행 제명

70) 金尙憲, 앞의 책, 같은 조, “但慳秘海外遊觀之所 不及世人 罕有知其勝 地誌亦闕而不載 良可惜也 … 仍題詩石上”.

71) 李元鎮, 앞의 책, 旌義縣, 山川條, “天池淵 在西歸浦上”.

72) 李增, 앞의 책, 庚申(1680) 2月 21日 辛巳條, “余到天池淵觀之 暴長 半不及朴淵 清麗奇壯 亦不及朴淵”.

우 이전의 마애석각은 확인되지 않는다. 천지연 또한 이형상 목사에 의해 勝景으로 꼽혔지만 정방폭포와 같은 이유로 해서 그 개체수가 1건에 그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IV. 맺음말

이상 조선후기에 조성되어 현재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의 분포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주요 분포지는 제주목의 방선문·백록담·용연이고, 대정현의 경우 산방굴사에 다소의 마애석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 중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연대가 확인되는 마애석각은 모두 101건이다. 제주목 관내에는 조선후기 전체 마애석각 대비 81%에 해당하는 82건이 분포하며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74건이 방선문·백록담·용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방선문과 용연은 제주읍성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백록담은 조선시대 이래 名山大川에 대한 典禮와 기우제 등을 지내기 위한 어사와 지방장관들의 등정 외에 白鹿과 신선의 전설로 인해 한라산 등정을 목표로 한 기행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탐라계곡은 19세기 후반 발굴된 탐승처이지만 제주읍성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탐승의 발길이 닿지 않아 조선후기에 조성된 석각은 1건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제주읍성 밖 승지 외 읍성 안에도 마애석각이 확인되는데, 오현단의 증주벽립과 산지천의 지주암·가락천·조천석 석각은 유생들에게 학문에 대한 경외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과 경계의 표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관이 주도하여 조성한 것이다. 이외에 한경면 용수리의 절부암 석각은 정려되지 못한 절부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오현단과 산지천의 마애석각과 함께 승지에 새겨진 석각과는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정현과 정의현 관내에서는 총 19건의 마애석각이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14건이 대정현 관내 산방굴사에 집중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지역으로는 창천리 창고천, 천제연, 천지연, 정방폭포에 극히 소수만이 분포한다. 산방굴사는 앞의 용머리해안과 어우러지는 빼어난 경관과 함께 대정현 邑治 인근에 자리하여 대정현감의 野遊와 제주목사 순력 시 승유처로 방문이 잦았기 때문에 마애석각 조성이 양현의 다른 곳보다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빼어난 경치로 인해 현재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천제연과 정의현 관내의 정방폭포와 천지연은 3읍의 治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석각 조성을 주도했던 제주목사 등 3읍의 지방관이 쉽게 채비하여 나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지리적 요건이 작용하여 조성 시기가 늦어지고 개체수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巡歷圖』

居昌慎氏大宗會, 『居昌慎氏世譜』 卷二, 起昌族譜社, 2009.

『慶州李氏松巖公派譜』 甲九.

金尙憲 著, 洪琦杓 譯註, 『南槎錄』 譯註(上), 濟州文化院, 2008.

_____, 『南槎錄』 譯註(下), 濟州文化院, 2009.

金錫翼, 『心齋集』(Ⅱ), 濟州文化社, 1990.

金倣 著, 金益洙 譯, 『蘆峰文集』 卷一 詩集, 濟州文化院, 2001.

_____, 『蘆峰文集』 卷之二·三·四, 濟州文化院, 2003.

金義正 著, 白圭尙 譯, 『譯註 海隱文集』, 濟州文化院, 2014.

南九明 著, 金永吉 譯, 『國譯 寓庵先生文集』, 제주교육박물관, 2010.

南萬里, 『耽羅志』,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淡水契, 『增補耽羅志』(景印本), 제주문화원, 2004.

延安李氏三陟公派譜刊行委員會, 『延安李氏三陟公派譜』 卷之一, 和信文庫, 1997.

尹著東 編, 金永吉 譯, 『國譯 增補耽羅志』, 濟州特別自治道·濟州文化院, 2016.

李源作, 『耽羅志草本』,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李源作 著, 白圭尙 譯, 『譯註 耽羅錄』 上, 濟州文化院, 2016.

_____, 『譯註 耽羅錄』 中, 濟州文化院, 2017.

_____, 『譯註 耽羅錄』 下, 濟州文化院, 2018.

李元鎮, 『耽羅志』,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1.

李應鎬, 『震翁先生詩稿』, 李鍾億 所藏 筆寫本.

_____, 『鹿潭實記』, 筆寫本, 제주민속자연사소장본.

- 李翼 『艮翁遺稿』, 1996年 重刊本.
-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濟州文化院, 2010.
- 李增 著,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 李衡祥 「南宦博物」, 『續耽羅錄』, 濟州文化放送, 1994.
- 林悌 「南溟小乘」, 『白湖先生文集』.
- 張寅植 編 『耽羅志』(景印本),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 趙觀彬, 『悔軒集』, 한국고전종합DB.
- 趙榮順, 『退軒集』, 한국고전종합DB.
- 趙貞喆 著, 金益洙 譯 『靜軒瀛海處坎錄』, 濟州文化院, 2006.
- 韓國學文獻研究所 篇, 韓國地理志叢書 『邑誌』六 濟州道, 亞細亞文化社, 1983.
- 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譯註增補耽羅志』, 濟州文化院, 2005.

2. 단행본

-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고지도』, 2020.
- 서울特別市, 『서울文化財大觀』, 三省出版印刷株式會社, 1987.
- 吳文福 『영주십경』, 서귀포문화원, 2019.
- _____, 『耽羅寺選』, (주)이화문화출판사, 2006.
- 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濟州道 磨崖銘』, 1999.
- 趙東元, 『金石文論著總覽』,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 현행복, 『방선문』, 도서출판 각, 2004.
- _____, 『취병담』, 도서출판 각, 2006.
- 홍기표,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제주 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6.

3. 논고 및 논문

- 金東柱,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 巡歷圖研究會, 2000.
- _____,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界結構과 支西帶帶制」, 『濟州島史研究』創刊號, 濟州島史研究會, 1991.

- _____, 「朝鮮前期 守令制度 研究」, 『史學志』 21, 1987.
- 金昌鎬, 「韓國의 金石文」, 『古文化』 4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4.
- 김치완, 「梅溪 李漢雨의 ‘낙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제3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백종진,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李榮培, 「濟州地方의 磨崖石刻에 대한 小考(朝鮮中期 以後 中心으로)」, 『調査研究報告書』 제4집,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89.
- 李鍾默, 「遊山의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藏書閣本 『臥遊錄』과 奎章閣本 『臥遊錄』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第12輯, 1997.
- 李義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 전영준, 「문화사교육 콘텐츠 구성을 위한 금석문 자료의 활용—강화도 금석문 자료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회, 2008.
-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2009.
- 趙東元, 「金石文의 歷史와 資料的 價値論著總覽」, 『대동문화연구』 권55, 대동문화연구원, 200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 洪淳晩, 「徐福研究에 관한 概說」, 『正房瀑布徐福遺蹟調査報告書』, 耕信印刷社, 1992.

[부 록]

〈별표-1〉 조선후기 제주목 마애석각 분포표⁷³⁾

장소(계)	연번	판독문	서체	크기	조성연월
방선문 (36)	1	雙溪石門/判官鄭東里/散人許運/ 閔廷楫/金時鎭/歲丁未八月初吉 日識/月老女媧天/岩開大禹斧 ※새김형식:좌→우	해서	4.5×5.5	1727.8
	2	登瀛丘/石竇呀然處/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鸞鶴若飛來/洪重徵 題/己未首夏*權世恭/己未首夏/	초서	16×20	1739.4

- 73) 마애석각에 새겨진 刻文은 일반적인 한문쓰기 형식인 우→좌,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이를 打字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정리하였다.
1. 판독문은 각문의 한문쓰기 형식인 우→좌, 세로쓰기를 좌→우, 가로쓰기로 고쳐 옮겼다.
 2. 각문 형식과 내용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판독문 끝에 ‘※’ 표기를 하고 이어서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3. 巖面에 새겨진 刻文의 列이 바뀌는 경우, 앞열과 뒷열의 구분을 ‘/’로 표시하였다.
 4. 刻文의 문자열이 上下로 위치를 달리하여 새겨진 경우 ‘//’로 표시하였다.
 5. 刻字의 판독이 불분명하여 필자 自意로 판단한 글자는 ()로 처리하였다.
 6. 刻字가 마멸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한 글자 수만큼 ×로 처리하였다.
 7. 刻字의 띄어쓰기는 마애석각 刻文의 형식을 따랐다.
 8. 마애석각의 조성연월은 각문의 干支에 의거하였다. 간지가 없는 경우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인 목사, 판관 등의 제주 재임기간을 표기했다.
 9. 독립된 암면에 새겨진 2개 이상의 석각이 동일한 집단의 마애석각으로 확인된 경우 이것을 1건으로 처리하면서 독립된 암면에 새겨진 刻文과 刻文을 *로 연결하여 표시하였다. 단, 백록담에 소재하는 金淨, 李翼, 崔益鉉 각자인 경우 이응호의 『鹿潭實記』, 紀行條에 “鹿潭 右紀蹟于鹿潭東崖 而首刻金冲庵及民翁勉庵姓諱 而左刻海隱及先君子 工役未畢云”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면 이응호의 아버지인 이기온에 의해 새겨진 것이 분명하나 각각의 제명이 세 인물에 대한 개별적 사적을 함축하고 있어 별도의 건수로 처리하였다.
 10. 글자 크기는 첫 글자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단위는 cm이다. 단, 기준 되는 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글자 아래에 선으로 표시하였다. 예. 砥柱岩
 11. 정방폭포의 마애석각 2건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濟州道 磨崖銘』(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1999)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였다.
 12. <별표-2>의 분포표도 이상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정리하였다.

	申德函/朴壽鳳			
3	防禦使安慶運/子致範/軍官李演 輔書*審藥/張鳳徵/倭學/劉廷禧* 林貴春/丁志升/南得遠	해서	18×17	1740.9~1743.3
4	牧使金 潤/黃奎鉉/金 澈/甲子 首夏	〃	13×14.5	1744.4
5	瀛洲伯尹九淵/軍官閔 震/柳敏章 /梁泰重/柳嘯徵/張紀龍/壬申孟春	〃	16×20	1752.1
6	瀛洲伯金夢燿/子肅基/郁基/軍官 辛一東/鄭彦佐/金得基/鄭東羽/崔 倬/李宗芳/洪慎健/審藥李禧大/甲 戌首夏*成漢宗/崔命祚	〃	15×14	1754.4
7	判官朴昌鳳/甲戌初夏	〃	9×9	1754.4
8	乙亥初夏/防禦使洪泰斗/軍官李 問樞/崔濬文/判官安世潤	〃	10×8	1755.4
9	耽羅伯朴聖浹/軍官朴聖漢/趙益 祥/李聖儒/姜遇周/金載赫/韓相五 /審藥梁慶柔/甲午初夏十日過此	〃	6×6	1774.4.10
10	喚仙臺/別壑乾坤大石門日月閑 莫云/無特地真箇有神山花老三/ 春色岩蒼太古顏憂然鳴鶴/至知 是在仙間己亥春金永綬/己亥季 春/子樂圓/尹進五/朴宗玉	초서	23×37	1779.3
11	入洞山如揖嵌室危欲墜/瀛丘我 亦仙玉斧鑿何年/玉溪逍遙生韓 昌裕	해서	7×9	1779.3
12	府伯尹得遠/子翎東/從子養東/冊 室玄鎮澤/金 桓/軍官金述曾/尹 得敦/姜文一/丙午四月/訪山門	〃	25×26	1786.4
13	李命俊	〃	20×20	1786.4~1788.3
14	金鳳吉	〃	17×14	1788.1~1790.8
15	牧使龔觀輝	〃	13×12	1799.12~1802.3
16	次壁上韻亂石沈雲合幽花向日開 仙人不可見我/輩抵空來/韓鼎運	초서	9×11	1807.3~1809.1
17	侄義達/牧伯李顯宅/判官孫應虎/ 旌義盧尙濞/軍官金漢甸/權啓東/ 韓永履/李顯莫	해서	8×6	1810.2~1811.6
18	李必述子斗南/金在浩/康 (綏) / 洪 良 (燮) / 李 × × / 蔡 ××/×××/×××	〃	6×10	1825.5~1827.2
19	浦口吞紅日山肩/荷白雲清遊/宜 此夕携酒且/論文/判官李義謙/戊	〃	4×6.5	1828.4.1

	子四月初一日			
20	李源祚/子鼎相/奉硯安命岳/丁義成/李踏夏	〃	14×22.5	1841.윤3~1843.6
21	牧使陸仁培/子裕錫/甲寅四月 日	〃	12×12	1854.4
22	牧使姜冕奎/堂任鎬/軍官李始愚/李啓奕/庚申閏五月晦日題	〃	7×7	1860.5.30
23	線通花徑轉/斧鑿石門開/已透參同秘/休嫌俗子來/己巳四月吉日/牧使趙義純	〃	6×6.5	1869.4.1
24	參判崔益鉉/李基璫來/乙亥	〃	10×8	1875~19세기 말
25	朴寅陽稼樊/耽羅命吏朴善陽/弟五衛將泰陽/子勝台/勝斗/軍官族人朴宗(誼)五衛將朴來敏/判官金東杓/本州進士金亮洙書/中房金仁宅/李昌基/壬午三月日	〃	7×7	1882.3
26	判官 高景峻	〃	8×9	1883.8~1885.4
27	知州沈賢澤/開國四百九十三年/朴箕壽/甲申四月日	〃	19×16.5	1884.4
28	謫客尹相和/甲申五月日	〃	8×7	1884.5
29	搜雲契/姜有琳/韓禎裕/慎栽葵/金庸圭/金炳鎬/金啓柄/姜斗勳/姜遇伯/吳圭瀛/李能白/李鍊百/李源弼/文斗南/姜師鎬/朴南岳/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潤五月初五日	〃	7×7	1884.윤5
30	風詠錄/金鍾運/朴章鉉/玄商休/金性久/金應璜/俞晟煥/文斗燦/朴景亮/洪亨坤/文圭三/金謙集/梁錫圭/姜宗杓/金奉河/慎奎錫/金寅錫/金履行/姜錫祚/李儀保/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閏五月初五日 辛巳春/金永權洪義杓/改修 ※1941.春 改修	〃	8×5.5	1884.윤5
31	牧使洪圭/軍官申鶴熙/李教晚/尹泳毅/乙酉//東帆洪埈	〃	10×11	1885
32	牧使沈遠澤/軍官朴永漢/沈相俊/朴章浩/丁亥四月二十日/又西沈樂中	〃	17×15	1887.4.
33	牧使宋龜浩/子榮稷/册室宋鍾奭/軍官宋元浩/尹斗成/皮秉奎/中房李仁典/己丑四月日	〃	11×11	1889.4
34	判官康仁鎬	〃	6×6.5	1889.4
35	瀛伯李在護/弟參奉在國	〃	19×10	1901.4~1902.6

	36	洪鐘宇/光武甲辰五月日*南萬里/郡守洪友淳/甲辰/金洙錫/金沂鍾	〃	30×30	1904.5
백록담 (19)	1	壬子三月/趙觀彬/以大司憲言事/被謫登此絕頂	〃	14×13	1732.3
	2	尹植/尹權/尹命勳/尹基/乙丑五月/尹命兼/權德行/成永夏/朴王嵩/孟仁行/洪重健	〃	7×7	1745.5
	3	趙榮順/以副修撰言事/被謫繼登此頂乙亥三月	〃	13×12.5	1755.3
	4	戊寅二月十七日登此/新伯趙威鎮/舊伯李潤成	〃	7×5	1758.2
	5	東西南北海揖掌一/峰浮獨立乾坤大/居然最上頭/鄭履煥身之/丁亥四月日題白鹿頂上	〃	6×10	1767.4
	6	南益祥/南峴/戊子四月//劉錫孝/金重運客從/慎基慶/戊子初夏登	〃	6.5×7	1768.4
	7	茫〃滄海闊/一拳漢拏浮/白鹿仙人待/今登上〃頭/丁亥秋任觀周	초서	6×8	1767.秋
	8	黃德彬/沈×之/梁埴/辛卯	해서	6×5	1771
	9	李養鼎/李亨默/羅東善	〃	13.5×16	1781.7~1782.1
	10	嚴濟/任斗材/嚴思晚/李命啓/韓濟意/南履觀/尹濟商/丁載遊/癸卯九月日	〃	6×6	1783.9
	11	恩坡退士沈公樂洙/以巡撫御史來過/甲寅 春*南凍	〃	10×9	1794.春
	12	趙貞(喆)×/丁酉以前×/被謫夷戊(月)×/趙貞(喆)/辛未以防×/使(繼)登絕(頂)	〃	20×17	1811
	13	金鍾輔/夫士簡/李膺良/洪範植/張文明/辛未	〃	7×8	1811
	14	牧使朴長復/乙未八月十一日	〃	6×5	1835.8.11
	15	牧使趙禹錫/趙義經/幕賓趙禧錫/咸永述/朴裕源/判官申義恒/李寅和/金秀男/劉永勳/文命新/丁酉五月日	〃	8×10	1837.5
	16	趙義純	〃	7×7	1868.10~1872.5
	17	崔益鉉	〃	9×10	1875~19세기 말
	18	金淨	〃	13×12	1875~19세기 말
	19	李翼	〃	12×12	187~19세기 말
용연 (19)	1	仙遊潭/牧使 李 檉/判官 金 雨/士人 崔 佖/軍官 梁宇標/金梯建/李 裳安孝曾/郭國柱/朴孝元/	〃	30×25	1658.8

	(蔡)有擘/教授河晉善末/至居客之右/戊戌仲秋書 ※仙遊潭 題額만 橫으로 새김.			
2	碧泓/仙查錄/節制使李翊漢/判官羅八紀/教授鄭 曙/軍官崔尙勳/鄭俊立/高致遠/劉興國/趙機善/姜渭迎××(訥)/癸卯/元月 ※ 새김형식: 좌→우	〃	10×17	1663.1
3	同遊錄/牧使元 相/判官姜聖佐/教官鄭維萬/軍官愼而言/李 (發)/宋繼宗/元戴賢/徐道謙/朴 壽/朴瑄/崔峻興/譯學李惟亮/審藥卞三傑/康熙十九年七月 日//元德和	〃	4×4.5	1680.7
4	翠屏潭/洪重徵題/己未夏*朴壽鳳/軍官世恭/申德涵	초서	12×21	1739.夏
5	安致範/庚申九月日李寅輔書	해서	39×36	1740.9
6	防禦安慶運/子取範進士/致範/軍官林貴春同知/丁志升武兼/禹世起折衝/李寅輔/金敬吾/辛酉三月	〃	5×4.5	1741.3
7	牧使金夢燾/軍官李 涉/趙泰敏/辛一東/鄭彦佐/金得基/鄭東羽/崔倬/癸酉仲春*成漢宗/金肅基/金郁基	〃	8×8	1753.2
8	甲戌仲夏/判官朴昌鳳	〃	7×8	1754.5
9	南益祥/丁亥秋	〃	12×14.5	1767.秋
10	白鹿潭流水/爲淵大海濶/兩崖皆翠壁/歸客片舟尋/任觀周/丁亥季秋	초서	4.5×4.5	1767.9
11	牧伯柳翫節度使去	해서	9×7.5	1776.3
12	離名何太古雲鎖九龍淵/居五須居九在天悔在田/行藏得中正秘顯體方圓/一理明無味物然我亦然/偷閑肩輿過特地遠人烟/海濶千年國龍藏九曲淵/古名眞有意今賞豈非/緣樂而忘不返朝日已西天/龍湫回九轉不幸海相通/莫遣桃花水恐牽世客/蓬金永綬醉題于庚子春/子樂園	초서	4.5×6	1780.春
13	海以兼山隱一潭/石門相拱翠屏深/題名欲借洪厓手/白鹿霞標遠遠尋/玉溪韓昌裕	행서	6×6	1780.春
14	回回蒼壁轉/悅與武陵通/忽看片舟至/去處疑漁子蓬/尹進五	〃	6×4.5	1780.春

	15	李養鼎/李景麟/張 亨 寔/羅東善/李儒謙	해서	10×16	1781.7~1782.1
	16	李命俊	〃	16×22	1786.4~1788.3
	17	出身康錫五/判官/白基虎/牧使鄭岐源/甲子三月 日全	〃	18×18	1864.3
	18	牧使沈遠澤/軍官朴永漢/沈相俊/朴章浩/丙戌九月 日/又西沈樂中	〃	16×14	1886.9
	19	洪鍾宇/子淳大/光武甲辰四月 日	〃		1904.4
산지천 (3)	1	砥柱岩 ※橫으로 새김.	〃	11×16	1735.4~1737.9
	2	嘉樂川	〃	10×17	1735.4~1737.9
	3	朝天石	초서	80×60	1735.4~1737.9
오현단 (2)	1	曾/朱/璧/立/後學蔡東健/後學洪敬燮/崇禎四丙辰摹刻	해서	50×64	1856
	2	光風臺	〃	24×25	1856 전후
오라동 가카우니 (1)	1	靈泉	행서	10×13	1875~1886
탐라 계곡 (1)	1	牧使趙禹錫/判官申義恒/幕賓趙禧錫/咸永述/朴裕源/趙義經/金秀男/卞恒遠/劉永勳/李明秀/金菊逸/笙文命新/琴金致元/丁酉九月日	해서	10×9	1837.9
용수리 절부암 (1)	1	監董金應河書洞首李八根刻/節婦岳//同治/丁卯/年記/字平三*判官/慎裁右撰 ※각문 중 監董에서 節婦岳까지는 橫으로 새겨져 있음.	전서, 해서	58×50.5	1869

〈별표-2〉 조선후기 대정·정의현 마애석각 분포표

읍명(계)	장소(계)	연번	판독문	서체	크기	조성연월	
대정현 (16)	산방 굴사 (14)	1	白宅仁子師喆/李(達)弘	해서	5×7	1748.7~1751.4	
		2	牧使金夢燾/李凌/軍官辛一東/崔倬/李道三/判官朴昌鳳	〃	7×6	1752~1754.10	
		3	任觀周/石作神仙窟/方山漏滴空/南天蒼海潤/吳楚一望中/丁亥秋	초서	8×7	1767.秋	
		4	宋益彩	해서	6×5	1767.6~1770.5	
		5	李儒謙/張 亨/寔/牧使李養鼎/佐幕李景麟	〃	15×15	1781.7~1782.1	
		6	次壁上韻/衰草山門寂蒼藤石室空/似聞笙鶴響來自海雲中/丁卯牧使韓鼎運	〃	3×3	1807	
		7	四海環千里/三山鼎半空/乃知仙子所/天作一壺中/縣監元相堯/丁卯五月 日	〃	4×2	1807.5	
		8	韓吉謨/呂喆永	〃	10×12	1809.1~1810.2	
		9	牧使李顯宅	〃	7×6	1809.1~1811.5	
		10	石勢龍頭壓禪居鳥/夢空霽雲生鳥底靈/液滴房中/壬午三月日具齡錫次	〃	3×3	1822.3	
		11	牧使趙禹錫/判官申義恒/大靜安允璟/旌義(安)義錫*幕賓趙禧錫/咸永述/朴裕源/金秀男/劉永勳*笙文命新/琴金致元/丁酉×月日	〃	9×8	1837	
		12	牧(使)(張寅植)/××崔炳吉/×××/金××××/判官姜在毅	〃	8×11	1848.8~1850.6	
		13	牧使姜冕奎	〃	8×10	1860.윤3~1861.2	
		14	光武癸卯九月三十日/牧使洪鍾宇※南萬里/光武七年癸卯丹楓晚節	〃	18×13	1903.9.30	
		창고천 (1)	1	任觀周/始出荊門日/先尋枕下川/蒼巖三曲立/短瀑晚風邊/丁亥秋	〃	11×7	1767.秋
		천제연 (1)	1	任觀周/天地淵開大瀑流/移來碁石壁深湫/空中負箭藟人步/第一奇觀此射候/丁亥季秋	초서	8×7	1767.9
정의현	정방	1	李養鼎/李亨默/羅東善	해서		1781.7~1782.1	

(3)	폭포 (2)	1	牧使洪鍾宇/郡守蔡洙康/光武癸卯九月 ×	〃		1903.9
	천지연 (1)	1	牧使 洪鍾宇/郡守 蔡洙康/光武癸卯九月二十七日/邑康平權	〃	13×12	1903.9.27

ABSTRACT

Distribution of rock cliff carvings in Jeju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ek, Jong-jin*

Currently, 101 of rock cliff carv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distributed in Jeju can be confirmed when it was built. 82 cases are distribu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Jeju-mok, and are concentrated in Yongyeon, Bangseonmun, and Baeknokdam which are beautiful scenery. On the other hand, rock cliff carvings were also built in Ohyeondan and Sanjicheon in Jeju town wall in addition to beautiful scenery, which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built in beautiful scenery.

19 of rock cliff carving which are located in Daejeong-hyun and Jeongeui-hyun were concentrated in Sanbanguksa located near Daejeong-hyun. On the other hand, Cheonjeyeon, Jeongbang Fall, and Cheonjiyeon are believed to have been delayed in construction and insignificant population due to the geographical requirement that the local minister of three towns, who were the leaders of rock cliff carving, can easily prepare.

Key-words: Rock cliff carvings, Jeju-mok, Daejeong-hyun, Jeongeui-hyun, Beautiful scenery

* Secretary General, Jeju Cultural Center

190 탐라문화 제69호

논문투고일 2022. 2. 3.

심사완료일 2022. 3. 8.

게재확정일 2022. 3. 23.